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21-0093593
(43) 공개일자 2021년07월2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G 9/10 (2006.01) A47G 9/00 (2006.01)
(52) CPC특허분류
A47G 9/10 (2013.01)
A47G 9/007 (2013.01)
(21) 출원번호 10-2020-0007365
(22) 출원일자 2020년01월20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이양수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80, 307동 1404호 (용운동, 용방마을아파트)
(72) 발명자
이양수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80, 307동 1404호 (용운동, 용방마을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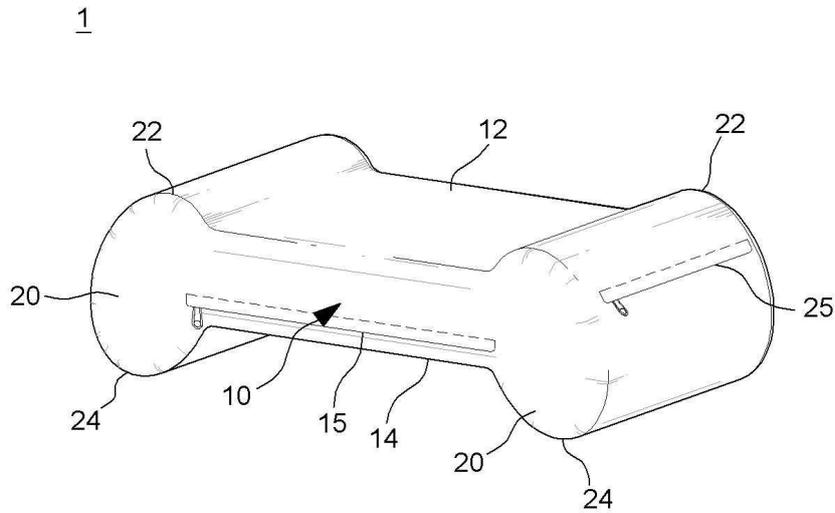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10 항

(54) 발명의 명칭 **다용도 베개**

(57) 요약

본 발명은 바로 누울 경우 상황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벨 수 있고, 옆으로 누울 경우에는 얼굴을 받쳐줘 목과 어깨의 부담을 덜어 피로해지지않으며, 다리나 발 베개로도 사용이 가능한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진 다용도 베개로, 상,하면(12,14) 사이가 소정의 두께를 갖는 머리 받침부(10); 상기 머리 받침부(10)의 좌우측에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머리 받침부(10)를 지지하는 지지부(20);로 구성되고, 상기 지지부(20)는 일측이 상기 머리 받침부(10)에 접하면서 상,하단(22,24)이 각각 상기 머리 받침부(10)의 상면(12)과 하면(14)에서 소정 높이로 돌출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도 - 도1



(52) CPC특허분류

A47G 2009/003 (2013.01)

A47G 2009/1018 (2013.01)

A47G 2400/08 (2013.01)

A47G 2400/10 (2013.0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상, 하면(12,14) 사이가 소정의 두께를 갖는 머리 받침부(10);

상기 머리 받침부(10)의 좌우측에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머리 받침부(10)를 지지하는 지지부(20);로 구성되고, 상기 지지부(20)는 일측이 상기 머리 받침부(10)에 접하면서 상, 하단(22,24)이 각각 상기 머리 받침부(10)의 상면(12)과 하면(14)에서 소정 높이로 돌출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20)는 원형 또는 타원형 단면 형태를 이루고, 상기 상, 하단(22,24)은 각각 상면(12)과 하면(14)에서의 돌출 높이가 다르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타원형 단면 형태를 이루는 지지부(20)는 타원형의 장반경선이 수직선과 15~30도로 경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머리 받침부(10)의 두께는 5~10cm이고, 상기 돌출부(20)의 높이는 10~15c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5

청구항 1 내지 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는 속채움재로 솜, 라텍스, 메모리폼, 스폰지, 다운, 목재 칩 중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이 혼합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20) 내부에는 방향제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수납하기 위한 수납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7

청구항 1 내지 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는 상호 격실 형태로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소재의 속채움재가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가 접하는 부위는 소정의 곡률반경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9

청구항 1 내지 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에는 머리 받침부(10)에 머리나 다리를 베더라도 과도하게 눌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유지구가 내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형태유지구는 탄성을 갖는 합성수지 판재로 이루어지며, 속채움재 안에 위치하여 인체가 이물감을 느끼지 않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베개.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베개에 관한 것으로, 바로 누울 경우 상황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하여 벨 수 있고, 옆으로 누울 경우에는 얼굴이 쓸리지 않도록 받쳐줘 목과 어깨의 부담을 덜어 피로해지지 않으며, 다리나 발 베개로도 사용이 가능한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진 다용도 베개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3] 일반적으로 베개는 수면을 취할 때 머리를 적당한 높이가 되도록 받쳐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베개는 바르게 누워서 정자세로 수면을 취할 경우와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일 경우 높이를 달리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면을 취하지 않고 누워서 잠시 쉬거나 TV를 시청할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베개 높이의 조절이 불가능하여 베개를 세우거나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세워지거나 반으로 접은 베개가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높이도 역시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정하여 사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0005] 본 발명과 관련된 종래기술로는 특허문헌 1 내지 3이 개시되어 있다.

[0006] 특허문헌 1은 취침시 정자세와 모자세에서 생기는 경추의 위치차이에 상관없이 편안한 취침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특허문헌 2는 머리를 괴면 중앙부가 눌러면서 변형되어 목을 잡아주도록 베개 몸체 양측 하단에 받침부를 형성한 것이며, 특허문헌 3은 사용자가 수면중에 뒤척임에도 정자세로 돌아오도록 하고 어깨와 승모근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한 기능성 베개구조를 개시하고 있다.

[0008] 한편, 상술한 종래기술에 있어서도 베개 사용자의 다양한 자세에 적합한 높이와 형태가 되도록 맞춰주지는 못하

는 단점이 있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 [0010] (특허문헌 0001) 한국공개특허 제10-2007-0098544호(2007.10.05.)
- (특허문헌 0002) 한국등록특허 제10-2038522호(2019.10.24.)
- (특허문헌 0003) 한국등록실용 제20-0489183호(2019.05.07.)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 [0011]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바로 누울 경우 상황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벨 수 있고, 옆으로 누울 경우에는 얼굴이 쏠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받쳐줘 목과 어깨의 부담을 덜어 피로해지지 않으며, 다리나 발 베개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베개를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 [0013]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하면 사이가 소정의 두께를 갖는 머리 받침부와; 상기 머리 받침부의 좌우측에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머리 받침부를 지지하는 지지부;로 구성되고, 상기 지지부는 일측이 상기 머리 받침부에 접하면서 상,하단이 각각 상기 머리 받침부의 상면과 하면에서 소정 높이로 돌출된 형태로 이루어진 다용도 베개를 제공한다.
- [0014]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상기 지지부는 원형 또는 타원형 단면 형태를 이루고, 상기 지지부의 상,하단은 각각 상면과 하면에서의 돌출 높이가 다르게 형성된다.

발명의 효과

- [0016] 본 발명에 의한 다용도 베개는 이를 상하로 뒤집어 사용하는 것에 의해 머리를 낮게 하여 수면을 취하거나 머리를 높게 하여 누워서 TV를 편하게 시청할 수도 있으며, 옆으로 누울 경우에는 머리가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게 되므로 수면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어깨와 목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고, 다리나 발을 받치는 용도로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0018]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다용도 베개의 사시도,
-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다용도 베개의 분리상태도,
-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다용도 베개의 정면도,
- 도 4는 바로 누워서 높게 벨 경우,
- 도 5는 바로 누워서 낮게 벨 경우,
- 도 6은 옆으로 누워서 벨 경우,
- 도 7은 발을 벨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19] 이하, 본 발명을 한정하지 않는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0020] 도 1 내지 3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다용도 베개가 도시되어 있다.
- [0021]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 예에 의한 다용도 베개(1)는, 상,하면(12,14) 사이가 소정의 두께를 갖는 머리 받침부(10)와;
- [0022] 상기 머리 받침부(10)의 좌우측에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머리 받침부(10)를 지지하는 지지부(20);로 구성되어 있다.
- [0023] 상기 지지부(20)는 일측이 상기 머리 받침부(10)에 접하면서 상,하단(22,24)이 각각 상기 머리 받침부(10)의 상면(12)과 하면(14)에서 소정 높이로 돌출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 [0025] 도면 중 부호 11은 머리 받침부(10) 내부에 수납되는 내피이고, 이 내피(11)의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속채움재(13)가 채워지게 된다.
- [0026] 또, 부호 15는 머리 받침부(10)의 전면(前面) 또는 후면(後面)에 형성되는 개폐구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은 슬라이드 화스너(지퍼)나 벨크로 테이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호 25는 지지부(20)의 외측에 형성되는 개폐구로, 이 또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라이드 화스너나 벨크로 테이프 등으로 개폐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 [0027] 또한, 부호 21는 상기 지지부(20)의 내측에 채워지는 속채움재로, 본 실시 예에서는 스펀지 또는 메모리 폼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머리 받침부(10)의 속채움재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 [0028]
- [0029]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에서는 지지부(20)가 타원형 단면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원형 단면 형태로 제작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며, 상기 지지부(20)는 그 상,하단(22,24)이 각각 머리 받침부(10)의 상면(12)과 하면(14)에서의 돌출 높이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 [0030] 본 실시 예에서, 상기 머리 받침부(10)의 두께는 5cm이상 10cm이하의 두께, 바람직하게는 6~8cm를 이루고 있으며, 상기 돌출부(20)의 높이는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가 10~15cm를 이루고 있다.
- [0032] 또, 본 실시 예에서, 상기 타원형 단면 형태를 이루는 지지부(20)는 도 3의 정면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타원형의 장반경선이 수직선과 15~30도로 경사진 상태를 이루고 있어 좌우 양측 지지부(20)의 하단(24) 사이의 거리는 멀고, 상단(22) 사이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 [0033] 이에 의해 머리를 비롯한 신체를 머리 받침부(10) 위에 올리게 되더라도 양측 지지부(20)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베개(1)를 위아래로 뒤집을 경우에는 상방으로 돌출된 상,하단(22,24)의 기울기가 각각 내측과 외측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머리나 기타 신체를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 [0035] 본 실시 예에서, 상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는 속채움재로 솜, 라텍스, 메모리폼, 스펀지, 다운, 목재 칩 중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이 혼합 사용될 수 있으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는 도 2의 분리상태도에서와 같이 별도로 속채움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일체로 속채움을 실시할 수도 있다.
- [0037] 도면상으로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지지부(20) 내부에는 방향제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수납하기 위한 수납공간을 더 형성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지부(20) 내부의 속채움재(21)에 공간을 마련하고, 상술한 방향제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내장하게 되면 베개를 사용하면서 원하는 향기를 은은하게 발산시켜 아로마테라피효과에 의한 쾌면 유도는 물론, 블루투스 스피커에 의한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자율감각쾌락반

응)효과 즉, 수면에 적합한 백색소음을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며, 누워서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또는 TV방송 등을 청취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0038]

[0039]

또, 본 발명에서는 상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는 상호 연통된 형태로 형성할 수도 있으나, 격벽에 의해 분리된 격실 형태로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소재의 속채움재를 채움으로써 각각의 고유한 기능 즉, 머리 받침부(10)는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이므로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느낌의 쿠션감을 갖는 소재를 선택하고, 지지부(20)는 머리의 하중에 의해 압축되는 정도 등이 중요하므로 압축강도 등이 상이한 스펀지나 메모리폼 등을 선택하여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1]

또, 본 실시 예에서, 상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가 접하는 부위는 소정의 곡률반경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누워서 머리를 좌우로 돌리게 되더라도 얼굴 부위가 너무 깊숙하게 꺾이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머리의 하중에 의해 눌리게 될 때 머리 받침부(10)과 지지부(20)가 접하는 경계부위에서의 급격한 꺾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며, 외형상으로도 완만한 곡선미와 볼륨감을 갖도록 하여 미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0043]

한편, 도면상으로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20)에는 머리 받침부(10)에 머리나 다리를 베더라도 과도하게 눌리거나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유지구를 내장할 수 있는데, 이 형태유지구는 탄성을 갖는 합성수지 판재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속채움재(13) 안에 위치하여 인체가 이물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0045]

본 실시 예에서, 상기 지지부(20)의 상단(22) 돌출 높이는 2~3cm이고, 하단(24)의 돌출높이는 5~8cm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의해 머리 받침부(10)의 높이가 6cm인 경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단(24)이 바닥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머리 받침부(10)의 상면(12) 까지의 높이는 하단의 돌출높이가 5~8cm이므로 11~14cm를 이루며, 머리의 하중에 의해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10)가 3cm정도 눌리게 되면 바닥에서 머리까지의 전체적인 높이가 대략적으로 8~11cm의 비교적 높은 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수면 상태가 아닌 누워서 TV를 시청할 때 적합한 높이가 된다.

[0046]

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양 팔을 접어서 베개 위의 머리 뒤에 고이게 되면 양 팔이 상방으로 돌출된 지지부(20)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지되게 되므로 머리를 더 높게 고일 수 있음은 물론, 양 팔도 편안하게 지지부에 의해 받쳐진 상태가 되어 피로를 경감해줄 수 있다.

[0048]

한편,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개(1)를 뒤집어서 지지부(20)의 상단(22)이 바닥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머리 받침부(10)의 하면(14) 까지의 높이는 상단의 돌출높이가 2~3cm이므로 8~9cm를 이루며, 머리의 하중에 의해 머리 받침부(10)와 지지부(10)가 3cm정도 눌리게 되면 바닥에서 머리까지의 전체적인 높이가 대략적으로 5~6cm로 낮아진 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수면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0049]

한편, 상술한 높이는 사용자의 연령이나 성별 또는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자신의 체형에 적합한 높이가 되도록 속채움재의 두께와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0051]

또, 본 실시 예에서는 옆으로 누울 경우에는 목뼈와 허리뼈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데, 이때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개(1)의 지지부(20) 하단(24)이 바닥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베개를 사용하면 되는바, 이때의 머리 받침부(10) 상면(12) 높이는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1~14cm를 이루게 되며, 지지부(20)의 돌출부분 즉, 지지부(20)의 상단(22) 부분이 상방으로 돌출된 상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머리가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됨으로써 목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어깨 부분에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얼굴을 고여주게 되므로 옆으로 자는 자세를 보다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옆으로 자는 사람에 있어서는 수면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수면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의 통증을 완화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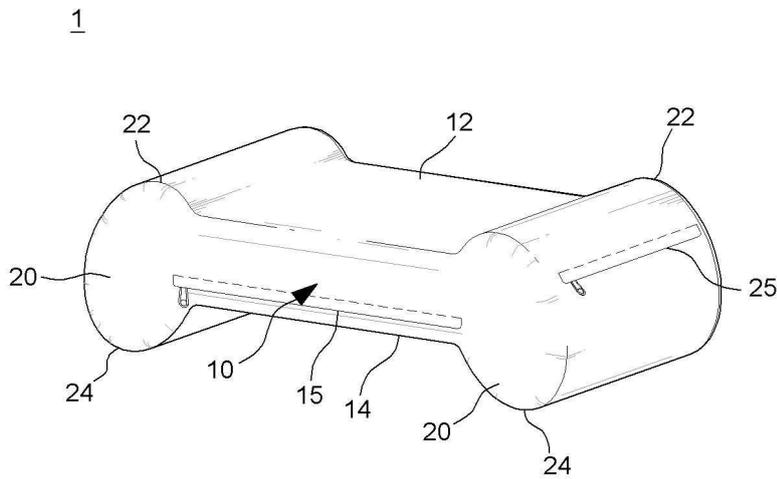
[0053] 도 7에는 본 실시 예의 다용도 베개(1)를 발베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발을 벨 경우에도 좌우측의 돌출된 지지부(20)에 의해 발이 좌우로 넘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워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하체의 피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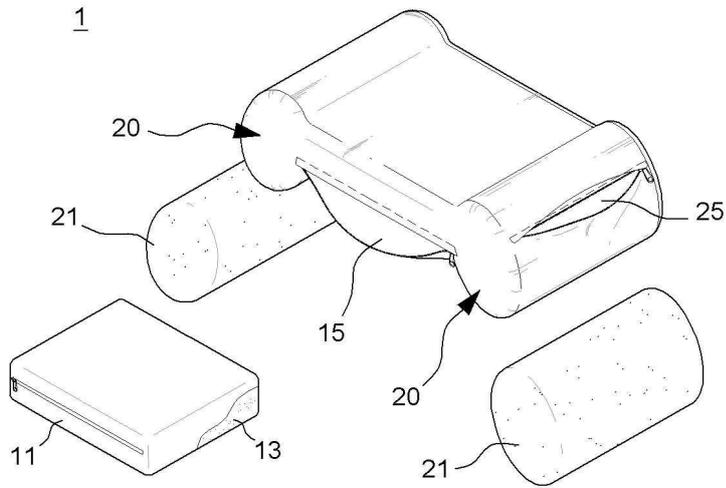
- [0055]
- 1 : 베개
 - 10 : 머리 받침부
 - 11 : 내피
 - 12 : 상면
 - 13 : 속채움재
 - 14 : 하면
 - 15 : 개폐구
 - 20 : 지지부
 - 21 : 속채움재
 - 22 : 상단
 - 24 : 하단
 - 25 : 개폐구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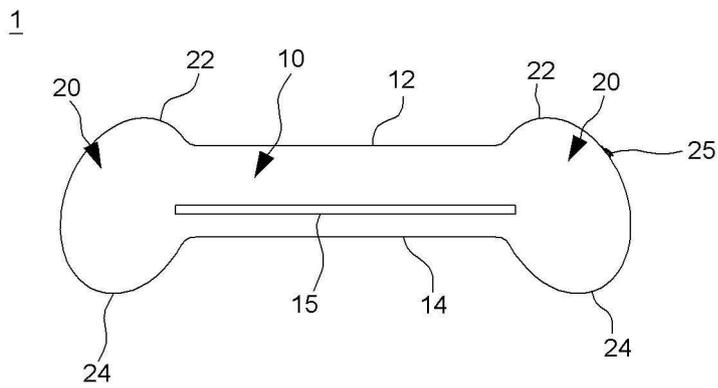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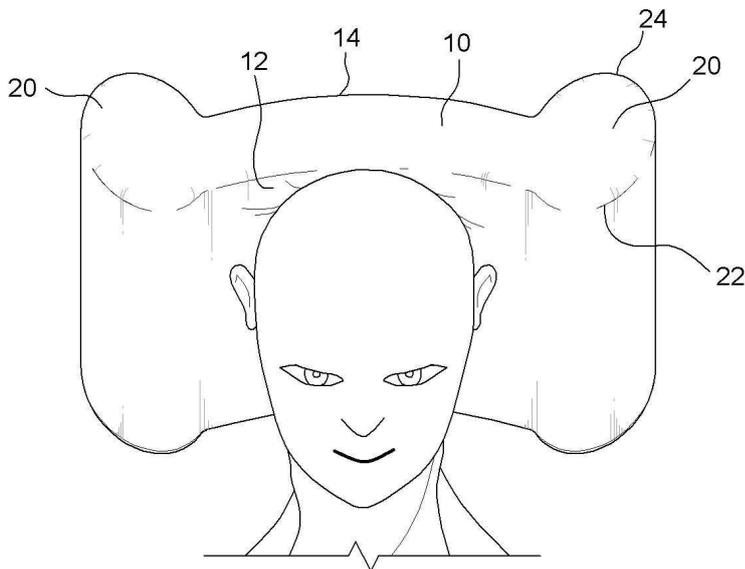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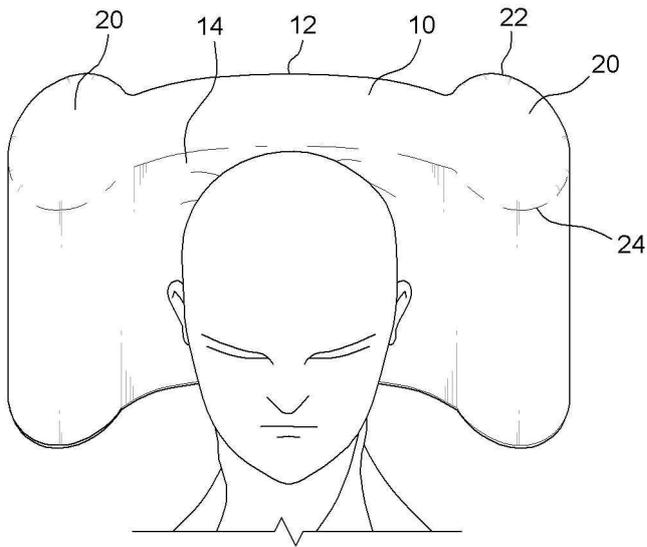
도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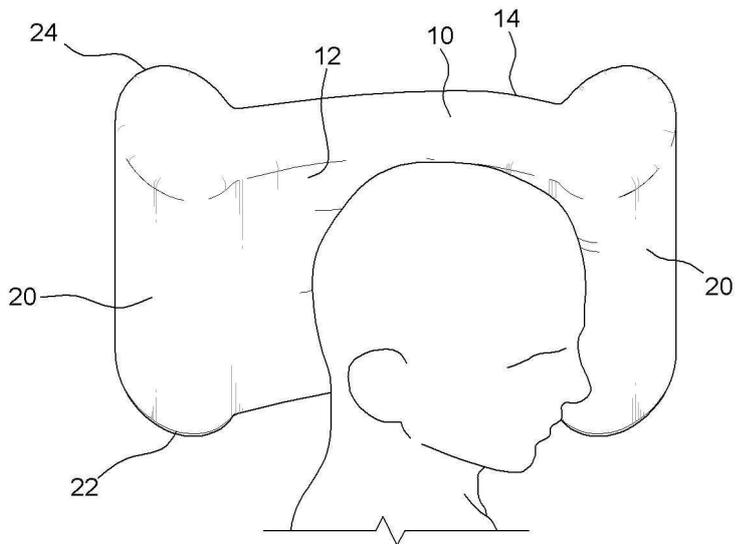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